

2021 여름호 (Vol. 48)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3, 7



계간 서신원 2021년 2(여름)호, 통권 48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21년 6월 29일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성령님, 감사합니다!

총장 현유광



나이가 들수록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성령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분주한 저의 마음에,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이 안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성령님은 인내와 지혜를 주십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청량함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충함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성령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죄를 용서 받는 기쁨과 다시금 거룩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성령님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어기고 범 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성자 하나님,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과거에 하였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파라클레토스=파라(곁으로)+칼레오(부르다)]는 “돕는 분, 변호사,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십니다.(요14:26) 저는 학교에 출근해서 “성령님,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둘째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시민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요3:3,5)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엡2:1) 성령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천국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마음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확증이 됩니다.(고전12:3) 사람이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13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갈5:22-23)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롬8:29) 도덕적인 수련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곧 한계에 부딪쳐서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더 이상 못해.”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높은 벽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고전12,14장) 각양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되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도 능력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만으로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고 섬기며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처음에는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할 일들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이웃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을 받고 싶으면 성경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하고 불러보십시오. 관계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과 사귀기 시작되고 발전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뿐만 아니라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요?” 기도 후 어떤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치하면 꼭 순종하십시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그에게 감사합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덕천교회 설립 100주년 명품교단 순장의 뿌리를 찾아서[2]

글 장석조 교수 (본교 연구소장, 서신원 편집장)

사진제공 김석진 장로 (동천교회 장로)

순장의 뿌리는 1921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덕천교회(현 동천교회)다. 1939년 당시 일제 치하의 교회와 성도들 모습이다. 여인들의 머릿수건은 관북지방의 정장 복식이다. 교회의 난방을 위한 배기통이 보인다.



1939년 덕천교회와 성도들

신사참배 반대의 맹장! 이계실 목사와 반룡산의 호랑이! 마구레

갓 30세의 젊음을 개척교회들을 세우는데 헌신한 이계실 목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검색어들이 있다. “신사참배 반대의 맹장”!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장로교회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적 예식일 뿐이라”며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함남노회에 소속했던 이계실 목사는 총회의 부당한 결정에 분개하고 덕천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과 함께 노회에서 탈퇴하고 신사참배 반대와

동방요배도 거부했다. 이 일로 인해 이 교회의 위병연, 한운몽, 한사몽, 한복현, 홍종현 등 여러 지도자들이 함흥 경찰서에 구금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의 맹장이 될 수 있었을까? 이계실 목사는 20대초에 한일합방(1910년)으로 인해 과거에 급제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던 중 남○○장로를 만나 한문 성경을 받고 성경을 주야로 탐독하던 중 예수님을 영접했다. 27세부터는 마구레(Duncan M. MacRae) 선교사와 함께 전도사역에 동역하고 1920년 선교사의 양녀 변영실 사모와 결혼했다. 마구레 선교사는 함흥 반룡산의 호랑이로 알려졌다. 그는 1898년 조선에 와서 해발 319미터의 작은 산 반룡산에서 선교기지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그보다 먼저 1893년에 독립 선교사로 황해도 소래 마을에서 사역하던 맥켄지가 1895년 열병으로 죽게 되자, 마구레 선교사는 선교부에 지원을 하는데, 사정상 파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에 낙심하지 않고 해엄을 쳐서라도 조선에 갈 것이라 외치며 호소하여 일본을 거쳐 마침내 1899년 12월 함흥에 도착해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의 딸 헬렌은 1910년 함흥에서 태어나 자라고,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부친의 생애를 정리해 1993년 “반룡산의 호랑이”(범 내려온다)라는 이름으로 영문판 전기를 출판했다. 이 책을 통해 그의 40여년 조선 선교, 복음을 향한 사랑과 조선인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고 묻혀 버린 북한교회사 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대할 수 있다.



1950년 홍남철수에 도움을 주신 포니 대령과 현봉학 박사

일제보다 공산 정권의 더 심한 박해와 저항

일제 강점기가 마친 후 교회는 공산 정권에 의해 계속 박해를 받게 되었다. 전재덕 장로는 일본의 박해보다 북한 공산당과 소련군의 박해가 더 심했다고 회상한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계실 목사는 주일에 이뤄지는 모든 노력 동원과 학생들의 등교, 그리고 정치 집회까지 거부했다. 그러자 특하면 정치보위부로 소환되어졌고 물과 고춧가루로 고문을 당했다.

그는 공산당 치하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남하하기로 결단한다. 그리고 1950년 12월 홍남철수 때 교인들과 함께 배에 오른다. 이계실 목사는 함흥에서 거제도로 피난 와서 핍절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를 가르치고 솔선수범해서 지켰다. 주일은 예배와 전도, 봉사에 집중해야 하는 날이다.



1951년 거제도 시절 교회



1954년 부산 문현동 시절 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

이계실 목사(1889-1971)와 함께한 5개 교회 성도 130여명으로 구성된 1세대들은 교단 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빅토리아 호의 북한 탈출의 주역들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거제도에 피난와서 1953년 10월 1일 다음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성경구락부(성경학교)를 세웠다. 1997년 1월 6일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1999년 3월 1일 초대 총장 최순직 박사의 지도 아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개교 첫 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1980년 동천교회 본당, 교육관, 덕천교회

순장교단은 100주년을 맞아 1세대의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이어받은 2세대와 3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이했다. 특히 동천교회는 교회설립 100주년과 함께 이재성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믿음의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일제와 공산 통치, 그리고 전쟁을 이겨낸 저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

<다음 호에서도 계속해서 덕천교회에서 동천교회까지의 역사적 여정을 사진과 함께 찾아가보게 될 것이다. 미리 중요한 몇 가지 사진을 살펴보았다.>

진잠제일교회



조병희 위임목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02번길 5(원내동)



저는 진잠제일교회 3대 담임으로 섬기는 조병희 목사입니다. 고(故) 홍순우 목사님과 현재 관천교회 담임인 이근우 목사님이 선대 담임교역자로 섬기셨습니다. 진

잠제일교회는 과거 대선교회(현 해맑음교회)를 섬기던 이들이 1992년 세운 29년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처음 대전 갈마동에서 모이다가 1997년 유성구 원내동(진잠)으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이근우 목사님이 담임교역자로 섬기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시무 장로 한 분과 협동장로 한 분, 세 분의 시무권

사와 열여섯 분의 남녀 집사서리와 시무 은퇴는 하셨지만 두 분의 은퇴권사께서 직분자로 섬기십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나 지나간 시간만큼의 내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들어오신 지체들을 포함하여 30여년이 다된 교회 공동체라는 내공이 있는지라 교우들이 대부분 가족 같습니다.

외부에서 청빙 받은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가 친화성이 깊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전의 교역자들처럼 교우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전 사역자들의 훌륭한 지도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잘 쌓은 덕에 새로 부임한 담임 교역자의 작은 흠결 정도는 보다 나은 다음의 성장을 위해 덮어줄 정도로 인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날카롭던 교역자의 성품도 덕분에 수 더분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부임 이후 '신앙인의 무지는 죄를 양산한다'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담임교역자의 극성스런 성경공부 인도와 어렵고 힘든 교리교육과정을 잘 인내하고 따라준 교인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에 구애됨이 없이 못해 낼 일이 없이 해내는 것이 진잠제일교회 교인들의 저력이기도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저마다의 몫을 담당하는 헌신적인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작지만 매력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앞서 설명한 겁니다.

최근 교회에 작지 않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불었던 강풍으로 인해 십자가 철탑이 넘어진 일입니다. 그 재난이 교회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될 요지는 다분했으나 재난 가운데 교회공동체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 교회는 차분해졌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5:4

이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인신사고(人身事故)가 없다는 것. 둘째로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교회당 지붕만 손상을 입었다는 것. 셋째로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아닌 것. 넷째로 재난 상황에 외면하지 않는 형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일과 연계하여 순장교단 현재의 근사한 단면이라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교회당 십자가 철탑 붕괴 사고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저는 평소 기도하면서 교제하던 몇 분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당장 닦친 상황수습을 위해 분주했었습니다. 교회의 재난 상황을 접한 선배 목사님들께서 새벽부터 담임교역자들만의 SNS에 재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려 기도요청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 아침부터 많은 교단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안부 전화와 격려를 접했지요. 조반 전에 현장으로 달려와 상황을 보며 도울 길을 찾아보고 현장 상황을 상세히 찍은 사진을 교역자들 SNS에 올려주신 주변의 목사님도 있었고, 소속 남부노회에서는 노회장님과 임역원의 방문과 함께 긴급히 쓸 재난지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직감하신 여러 선배 동역자들과 선한 마음을 열어주신 여러 장로님들이 교회와 개인의 이름으로 작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보내주셨으며, 전화로 격려까지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기에 지면을 통해 도움을 주신 모든 지체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모든 상황이 잘 수습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진잠제일교회를 작지만 매력 있

는 교회공동체라고 소개함 같이 진잠제일교회가 속한 순장교단 역시 외형적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지만 온정과 매력 넘치는 교단이라고 소개합니다. 향후 진잠제일교회가 갖는 비전은 주변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강하면서 온유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과 성장한 교세로 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변화는 인식의 전환과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교회의 집회를 감염 확산의 원인인양 평계하는 정치인들의 비겁한 행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기독교회를 혐오단체로 인식하는 반기독교 단체 및 사회기관들의 추한 행태는 이미 공히 인지하는 바인 줄 압니다. 이런 양상은 향후 전염병이 돌거나 반기독교적인 이슈를 들고 나오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 예측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훼손된 기독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며 믿는 바를 증거 하는 삶을 살아내는 강하면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진잠제일교회 공동체가 혼돈스런 시기에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祝福)합니다.

신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허영은 졸업생



2021년 2월에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허영은입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을 입학한지 그저께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한 후 나의 모습이... 달라진 것? 살펴보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에 할 말이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 자신이 부족함이 많기에...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대학학부에 편입학하여 2년을 공부해도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에 신대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학위를 받는 신학대학원 코스도 있지만 굳이 목회학 과정으로 나를 단련하고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내 모습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으려나? 지금까지의 의문들이 다 해소 될 수 있으려나?하여 신대원 쪽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3년 공부하는 동안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겸하였기에 정신없이 과제를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정신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상황들 마다 여린 가슴으로

상처받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후 쫓겨난 곳이니까... 이정도면 장석조 교수님 말씀대로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세상에 대하여 포기하지도 말고, 방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이 바로 되어가도록 중간자 입장에서 중보자 중간자라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은 변화는 있는 셈이군요.

원래 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목숨거는 사람입니다.

어릴적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 보상으로 늘 칭찬받는 것에 습관이 되었기에 칭찬이 없거나 비난을 받으면 못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늘 밀려오는 일들을 다 감당을 못하여 평평 울기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엉망이고, 아이들은 매일 아프고 남편은 직장관두기를 종용하고... 가정과 직장 모두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정은 파헤쳐졌구 몸도 병이 났습니다.

어릴적부터의 꿈은 의대에게서 의사가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꿈이 좌절되고 가정을 잘가꾸어 아이들을 의사만들어야지 했는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되니 병이날 수밖에... 어릴때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봉사도 많이 많이 하게 되었지요. 언젠가는 나의 일상의 일들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으로 테레사수녀같은 삶으로 칭송받기를 소망하면서, 몸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

다. 우울증도 나아졌구 그런데 내 가정에서의 회복은 쉽게 되지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예배에 나가지 않고 가족복음화는 요원하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전부인가 최선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의구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인가하는 죄스러움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였고, 나의 믿음에 대한 것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시간을 다시 하나 하나 되짚어보면 고등학교 교사로서, 3일의 야간 등교 수업하고 자정에 귀가하는 가히 죽음의 코스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교육과정이 바뀌어 교재연구가 많이 필요했기에 죽을것만 같았지요. 수업의 질도 저하하고... 혼련이라고 여겼지만 육신적 한계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긍휼하게 봐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아직은 부족함 투성이고 나약한 부분들 투성이지만, 고3 담임으로 학교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정진합니다.

교회의 사역에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나 자신을 다듬고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지금까지 일구어온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에서 나는 아픈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가교의 역할로 세상 사람들의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민음의시

전임숙 (3학차)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사십 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신8:2)

단계 뭘지 아니
먹어 봐야 알지
사랑스레 꽃넉쿨로 부르는
여린꿀벌이 말을 걸어왔다

재밌는게 뭘지 아니
웃어 봐야 알수있지
패인자리 흙을 채워주는
다정한 산새가 웃어왔다

나무아래에 앉았다
저쪽에서 청솔모가
이나무로 건너왔다
내쪽에 가까이왔다

나처럼 좋아하는 땅나비
애가 흰종이 내무릎위에
앉은 딱! 초 숨이 멎었다
가까이 아주가까이 왔다

알아 보시려고 주님이
신기하게 오신 것이다
작은새가 눈 깜짝할새
눈앞에 지나갈때 그때

원우회 이야기



최선옥 신임 원우회장(3학차)

6월 첫 경건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뒤였다. 주간원우회 단독방에 주간원우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통보가 올라왔다. 순간 드는 생각이 '인생 참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전 선거 공고에, 나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후보지명을 거절하였었는데, 결국은 모든 주간 원우들을 후보로 올린 가운데 투표하여 최고 득표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온 결과였다. 경건회 후 광고시간에 새 임원으로서 황설수설 인사말씀을 드리고 한 동안 멍해있었다. 잠시 후 카톡으로 쏟아지는 축하와 격려 메시지에도 망연자실해 있다가, 그에 대해 감사의 답을 하지 못하고 도와달라는 요청만 먼저 드리게 되었다. 나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원우들로부터 받았던 톡들이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래, 이거다! 나는 그저 대표하는 자리에 있을 뿐, 원우회는 원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거기에만 몰입하느라 이렇게 귀한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난 임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그리 편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라도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회장과 총무직을 맡으셨던 선배 원우들과 이런 저런 심정과 걱정들을 나누고 조언을 받으면서 용기를 조금씩 얻게 되었다. 그리고 가까이 총무직을 수락해주신 전임숙 원우의 조력과 여러모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원우들의 지원을 힘입고 다음 학기의 원우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서로가 부족한대로 그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더욱 한 몸 한 지체로써의 연합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기쁨과 유익

을 누릴 수 있는 원우회가 되어가고 싶다는게 새 회장으로서의 소망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빨강머리 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멋진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감사한 지금이다. 할렐루야!



정영옥 야간 원우회장

안녕하세요 2021년 원우회장 정영옥입니다. 개혁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목회자와 선교사 및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에 원우회장을 맡게되어서 영광입니다. 원우들 모두가 다음세대의 지도자들이며 미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고 갈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적, 세계적인 사명을 가진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학문적 발전과 더 나아가 영적인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데 있어 한말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서신원의 부흥과 발전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원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저희 원우회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지 하고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효동 전도사(6학차 졸업)

어떤 달리기는 저 끝에 끝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학업으로 보자면 긴 시간의 일단락이지만 새로운 목회의 길에서는 아직 출발선에서 몸을 풀고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민은 그 둘의 길을 어떤 모습으로 연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라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긴 학업과정에서 가정의 일상을 지켜주셨습니다. 적당한 경제적 상황에서 부족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만함에 자족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분명 지금처럼 인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돌아보니 정말 입학은 었그제 같습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위하고 함께 수고의 짐을 지면서 주어진 시간을 채워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신학과 신앙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의 따뜻함에도 감사드립니다. 보답할 길은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앞으로 실천해가는 삶이겠지요. 아마 이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만날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보낸 시간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보려 애썼던 수고와 노력들이 분명하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각고의 결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떠나려고 합니다. 학업의 과정은 마쳤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주 안에서 서로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지면을 통해 해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용기를 드립니다. 또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함께 붙잡고 가자고 응원합니다. 학우님들이여, 어느 날인가 꽃비가 내리던 옥상에서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날이 참 좋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여기저기에 모여 앉아 담소하며 주고 받았던 그 때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자 하는 곳이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땀을 때는 잔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서신원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하는 곳이며 떠날 때는 그런 소중한 기억을 갖고 떠나보내는 곳입니다. 요즘 서신원은 꽃이 피듯 단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찾아와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우님 여러분이 혹시 선배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신다면 '부지런히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십시오'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전) 야간 원우회장

2019년 봄 입학한 서신원은 작고 아담한 학교였습니다. 신대원은 MDiv 1학년이 가장 힘들다고 다들 그러셨는데 무사히 마치고 2020년 5월에는 야간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이란 직분은 다들 그러하듯이 전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학생이 혼자인지라 그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5학차의 시간 속에서 가장 뜻 깊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번학기 임원으로 봉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야간 총무님의 결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간 회장님과 총무님의 도우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승의날 준비를 함께 한 일과 작년에 하지 못했던 옥상 워크숍을 진행한 일은 더더욱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후임 회장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서신원과 야간 원우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희창 전) 주간 원우회장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원우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원우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간 원우회장으로서 주간 총무님이신 김상아 원우님과 야간 원우회장이신 김도형 원우님과 함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모든 원우님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원우회 활동 가운데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교수님과 직원분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원우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신임 주간 원우회장이신 최선옥 원우님과 주간 총무이신 전임숙 원우님께서 함께 계획하고 수고하시는 섬김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고(故) 이상찬 박사 사모 도서 기증



웨이스신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던 고 이상찬 박사가 소장하시던 도서 약 6천권을 사모(현선숙)께서 본교에 기증 하셨습니다. 미주노회에서 운임을 부담해주시고,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의 교우들이 수고해주셔서 뉴욕을 출발하여 7월초에는 본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선숙 사모님과 뉴욕 교회 교우들, 그리고 미주노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호 4면 기사내용 정정

전웅현 장로의 부인 이순례 권사; 전재덕 장로의 형제들은 전재열 피택장로, 전재영 목사, 전재길 목사

고신 남서울교회(담임 최성은 목사) 서신원 방문



5월 18일(화) 정오에 고신 남서울교회 담임 최성은 목사님과 구본철, 진춘근 장로님들이 서신원을 방문하셨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서신원을 위해 비말마스크 40,000개(20박스), KF-94 마스크 1,600개(2박스), 손세정제 200개(10박스)를 기증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경건회 후 도시락을 교직원들과 참석한 원우들에게도 제공해 주셨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교를 방문해 주시고, 선물과 도시락을 제공해 주신 남서울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학년도 제1학기 종강 경건회



2021학년도 제1학기 종강 경건회가 6월 8일(화) 305호 강의실에서 있었다. 주간반은 오전 11시 20분에, 그리고 야간반은 저녁 8시 15분에 시작했다.

현유광 총장의 인도로 교수들과 직전 원우회 임원들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그외 원우들은 Zoom을 통해 참여했다. (주간 반주는 김다슬 원우가 담당) 현유광 목사는 다니엘 1:8-9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4일(수)까지 후기 신입생 원서접수 중에 있다. PhD 성경주해 1명과, 성경주해,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전공 ThM과 상담(목요일 주간), 사회복지(화, 목 야간) 전공 MA과정 14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b.ac.kr)를 참조하거나 학교전화(02-845-7711)로 문의 하기 바란다.

박영복 교수, 구약논집 제19집에 논문 게재 및 논평

본교 구약학 박영복 교수는 2021년 3월에 발간된 『구약논집』 제19집(69-100)에 "아가서의 언어적 분석: 화자-청자 분석을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21년 4월 24일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76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에서 본교 장성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최순진 박사(헛불신대)의 "낮은 자로 나귀를 타고 온 왕(스가라 9:9)에 대한 재고"의 논문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최순봉 교수 청년사역네트워크 특강

본교 신약학 최순봉 교수께서 청년사역네트워크 2021년 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초청 받아 특강을 하시게 되었다. 기독교 TV 방송인 CTS에 뉴스로 보도되었다. (아래 링크 참조) 주제는 "21세기와 바울의 결단"으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청년 사역의 미래를 제시한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75629>

지태일 교수 하나님의 영광, 칼빈의 삶과 신학의 모티프 출간

본교 산학협력 교수이신 지태일 교수께서 신간을 출판하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칼빈의 삶과 신학의 모티프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각도로 접근하며 이해하기 쉽게 다루었다. 저자는 칼빈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과 삶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가 종교개혁기의 신학과 목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범을 제시하며 친절하게 인도해 준다. 지난 4월 5일(월) 본교에서 교단 목사 몇 교수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 수고하신 지 교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기쁨을 나누었다.

도서관 소식

<http://lib.sb.ac.kr/>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는 [로그인] 후 이용하셔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ID 와 PW는 학사정보 로그인 정보와 같습니다.)
- RISS(한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국,내외 학위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도서

본교 도서관에서는 2021년 5월부터 매월 “이달의 도서”를 선정하고, 도서 및 저자, 서평을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 입구에 게시, 소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도서 선정 방법은 매달 전임 교원이 도서를 한 권 선정하여 서평과 함께 소개 합니다.



5월 이달의 도서 : 현유광 총장 선정 도서

도서명 :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저자 : 권순웅 외(미국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내용 : 교회교육에 대한 현재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교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월 이달의 도서 : 이동영 교수 선정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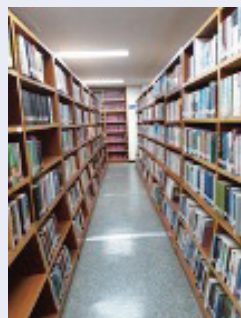
도서명 : 『신학 레시피』

저자 : 이동영(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조직신학」석사, 독일 보름 대학교에서「삼위일체」신학 박사)

내용 :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작이다.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도와줄 전통적인 조직신학 입문서

서고도서 장서 점검

- 본교 도서관 소장 장서의 분포를 보면,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전체 도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협소한 서고와 소장도서의 분실 및 오배열 상황이 심각하여 본교 도서관에서는 2021년 2월~6월까지 장서점검을 진행하였고, 오배열로 인한 분실도서를 정배열 함으로써 분실도서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및 서고도서 장서점검 진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폐가제(담당자에게 도서 신청) 운행하던 서고를 6월 14일 이후 부터 개가제(자유롭게 서고 출입)로 운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희망도서 신청

- 희망도서는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 신청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My Library 희망도서신청
- 과년도에는 1개월 단위로 도서를 구입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신청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도서를 구입 함으로써 신청 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기부금 내역

2021.03.01 ~ 2021.05.31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신원사랑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 109분의 개인 후원자와 14개 교회 기관이 서신원사랑 후원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0분의 개인후원자에 동참해 주십시오!아래 정기후원 참여방법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숙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개인	김선종	박예순	유현희	장성길	최경림	교회 및 단체
강미랑	김성희	박지호	윤석연	장영철	최수연	교단발전위원회
강미영	김순옥	박천수	윤성자	장인성	최순봉	루디아장학회
강영숙	김승희	방우석	이명순	장임순	최영숙	연합전교회
강화순	김윤재	백희숙	이석원	전계현	최주창	전국장로회
공인애	김은태	서상국	이성매	전양순	최택규	관천교회 선교회
구희원	김장호	손계숙	이세진	전웅현	최한이	대구햇살교회
권지영	김준모	손근수	이승훈	전충현	현나영	동인교회 권사회
권태연	김진환	신은주	이영순	정보원	현소영	동천교회
권태영	김현숙	신태현	이예찬	정복희	현유광	동천교회 나눔회
길기한	나성엽	심은혜	이주철	정선녀	현윤재	동천교회 유니게선교회
김강호	나재근	안춘희	정미경	정성기	황기연	신원예담교회
김광자	남분식	안현만	이준호	정은희	황태근	창대교회
김남희	박소순	양창국	이혜순	정정희	황희자	춘천교회
김미숙	박순자	오미경	이희창	조경휘	(무기명)	해맑음교회
김민석	박순희	오영숙	임용태	조순애		
김병호	박시현	우윤해	임진화	조영철		
김병희	박영복	위용찬	장명분	진민우		
김선성	박영심	유승인	장석조	차명란		



순수신앙-진리탐구-바른인격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당신은 하나님의 Visioner입니다.

원서접수 : 2021년 6월14일(월) - 7월 14일(수) 까지

전형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전형방법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대면 또는 화상 통화로 선발



◆ 모집과정 ◆

과정	모집 분야	과정별 수업연한 & 모집인원
신학과정	- 성경주해	Ph.D(3년) 1명
	- 성경주해, 신약&구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Th.M & M.A(2년) 14명
전문인과정	- 상담전공 (목요일 주간) - 사회복지전공 (화 / 목 야간)	

※ 과정 설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과 함께 COVID-19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깊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와 실천으로...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el: 02-845-7711 또는 홈페이지(www.sb.ac.kr)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지하철 2호선 4번출구에서 도보 5분)